

여명노인복지의 3대목표

-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 가족기능의 회복
- 노인복지 정책 발전

여명

노인장기요양지정기관

여명노인복지센터 「여명」 통권 제21호

발행처 : 여명노인복지센터 ●발행인 : 도성숙 ●편집인 : 최 현

전 화 : (063) 224-5673 ●FAX : (063) 224-6896

560-86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78-9

●E-mail : careym@hanmail.net ●카페 : <http://cafe.daum.net/carey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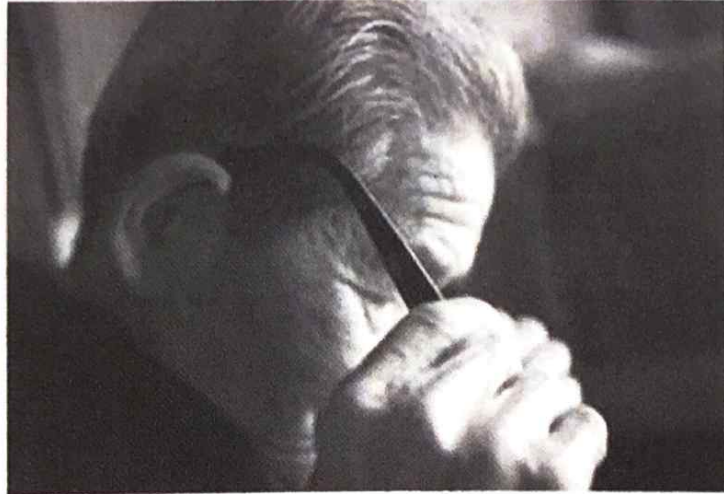
●인쇄 · 디자인 : 대흥정판사 063)254-0056

여명노인복지센터는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우애서비스, 가사서비스, 개인서비스 및
 기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간호 서비스와 운동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안(老眼)



글. 진주원

가까운 글씨를 멀찌감치 떼어야 보인다
안경 두 개를 번갈아 써야 할 모양이야

오는 백발이야 작대기로 후려친다지만
되덜 얇는 갑갑함은 뭘로 막는다?

허긴, 많이 부려 먹었지
세상 헛것 다 보느라, 못 볼 것 흠치느라
뜻 모를 책이랍시고, 문명이라 구경이랍시고

벌레 소리 쟁쟁한 밤 달이나 한참 보세
고운 기억 담고 담아 별빛으로 광을 내세

낙엽 굵어 태우듯 아침나절 식전거리 잡문이나마
향 맑게 올라가는 연기는 선명하게 뵈올른지

※출처 : 월간 《좋은생각》

CONTENTS

| | | |
|------------------------|----|--|
| 아름다운 글이 있는 곳 | 02 | “노안(老眼)” |
| Contents | 03 | |
| 여는글 | 04 | “큰 봉사와 사랑의 실천도 작은 나눔과 후원의 실천에서부터... 권태균 후원자 송천동 우체국장 |
| 정기활동 | 05 | 가정방문요양,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영양죽/밑반찬지원, 생신축하 병원동행, 행정업무대행, 노노케어, 장애우 도시락 배달 등 |
| 노노케어사업 | 06 | 노노케어 활동 참여자 사례발표 |
| Happy Birthday To You! | 07 | 어르신 생신축하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08 | |
| 현장의 소리 | 09 | “언제나 이 첫 마음으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장한나 요양보호사 |
| 절기지원 | 10 | |
| 봉사자의 글 | 12 | “오늘”의 소중함 한일례 자원봉사자 “작은사랑 큰 기쁨 봉사단” 여부회장 |
| Congratulation! | 13 | 수상을 축하해요^^ |
| 어르신 건강 프로젝트 | 14 | 고창 구시포 해수찜 나들이 |
| 자원봉사자 해넘이축제 | 15 | |
| 어르신 서비스 만족도 조사 | 16 | |
| 기타동정 | 17 | |
| 여명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 | 18 | |
| 2010년 결산회계 | 19 | 상반기 사업계획 |
| 도움의 손길 | 20 | |

큰 봉사와 사랑의 실천도

작은 나눔과 후원의 실천에서 부터 ...

후원자 권태균 (송천동 우체국장)

저는 송천동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참된 복음을 전파하는 여명교회와 나눔을 실천하는 복지센터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교회의 역할과 사회봉사활동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과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과 물질 후원자로 참여하고, 명절 어르신 물품지원활동에 차량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센터간사님과 함께 어르신 댁을 방문하면서 다소 어색해하는 저와는 달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편안하면서도 정감있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봉사는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든 진솔한 마음을 담아 실천하는 게 참된 봉사라는 말씀을 주위분들에게 전하면서 저와 같은 후원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사이드에 따라 옮겨간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제가 보고 느낀 그대로의 여명을 소개하면서 후원방법을 안내하여 전직원이 물질후원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나눔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나의 작은 나눔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나눔의 사례를 주변에 전파하고 참여를 권유하여 후원자가 많아지면 봉사자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비록 여명 가족분들처럼 큰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는 없지만 저와 같이 나눔에 관심을 갖는 작은 후원자가 더욱 늘어

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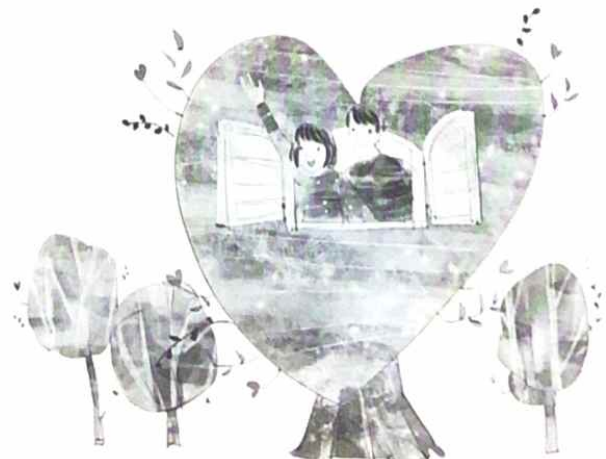
여명과 함께하면서 얻은 가장 큰 보람은 나의 작은 후원일지라도 봉사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고, 큰 봉사와 사랑의 실천도 작은 나눔과 후원의 실천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과 나눔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소중한 의미를 저부터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여명 가족여러분!

올 한해도 내내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2011년 신묘년 새해에 ...





어르신들에게 항상 **사랑**과 **정성**을 전해 드려요~

●가정방문요양 서비스●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책임감 있는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가사, 개인, 우애서비스를 지원하고 건강 체크 서비스, 외출 및 병원 동행, 차량 지원, 약타다 주기 등 다양한 어르신들의 욕구를 해결 해 드리며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지킴이가 되어 행복한 노후가 되도록 활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밀반찬지원 서비스●

어르신들의 욕구와 필요에 맞춰 생물 및 조리한 밀반찬을 월 2회 이상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어르신들의 가족이 되어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해지시는 날까지 영양 보충과 건강 증진에 힘쓰고 어려운 경제 부담을 덜어 드리는 세심한 관심으로 어르신들의 삶을 가꿔드리고 있습니다.

●영양죽 지원 서비스●

매주 건강 상태가 나쁘신 어르신이나 기력이 약해지신 어르신들에게 맛있고 영양 만점의 풍부한 죽을 배달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죽이 그 어떤 약보다 아픈 몸을 낫게 해 주신다며 변함없이 고마워 하신답니다! 우리의 깊은 관심과 사랑이 외로운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드리기를 소원 합니다.

●노노케어 사업●

'노인이 노인을 케어 한다'는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봉사자분들이 어르신들의 가정을 찾아가 말벗과 집안일 돕기, 일상생활 도우미가 되어 친구처럼 가족처럼 어르신들을 돌봐 드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처럼 많은 보탬은 되어 드리지 못하는데도 작은 봉사에 고마워하시는 어르신들 모습 속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봉사자 분들의 환한 미소가 오래 동안 간직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우 도시락 배달사업●

전주시 거주 장애우 약 50명에게 매일 도시락과 밀반찬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양소를 고려 생각하여 정성을 다해 요리하여 맛있는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배달하고 있으며 그 분들의 질병이나 건강등을 배려 해 드리고 있어 매우 만족스럽고 고마워하십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음식 조리과 배달에 수고해 주신 자원 봉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노노케어

‘노인이 노인을 케어 한다’는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의 가정을 찾아가 말벗과 집안일 돕기, 일상생활 도우미가 되어 친구처럼 가족처럼 어르신들을 돌봐 드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처럼 많은 보탬은 되어 드리지 못하는데도 작은 봉사에 고마워하시는 어르신들 모습 속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봉사자분들의 환한 미소가 오래 동안 간직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의 마음으로..

김옥례 (노노케어 참여자)



처음 만나 볼 때에는 많이 어색하고 낯설어하시던 모습이지만 이젠 우리 어르신들과 정이 들어서 어르신 집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반가운 얼굴로 맞아 주십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 집에 방문해서 설거지와 빨래도 하고 반찬을 만들고... 고마워서 몇 번 씩이나 또 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노라면 그 동안의 시간들이 뿌듯해집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계속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를 통해 얻게 된 자신감

유순임 (노노케어 참여자)



처제가 방문하는 어르신들은 혈육도 없고 오가는 사람들도 없어 외롭고 쓸쓸한 분들이십니다. 함께 시장 봐서 김치도 담그고, 병원에도 같이 다니다 보니 사이가 무척 가까워져 밤이나 낮이나 어르신이 긴급히 연락이 올 때면 약과 먹을 것도 사들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올 해부터는 건강이 부쩍 좋아지셨는데 제 정성 덕분이라는 어르신 말씀에 힘이 납니다. 나이 들어 무슨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젠 우리 용기를 내어 어르신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봉사를 통해 얻은 자신감

하옥순 (노노케어 참여자)

노노케어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누군가를 돌보게 되어 무척 보람됩니다. 병들고 약해진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머지않은 내 모습이라는 생각에 더욱 겸손해 집니다. 활동하면서 저의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노노케어 활동을 통해 바쁘고 뜻 깊은 올 한 해가 되었으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와 무려한 삶에 활력을 찾게 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2010 노노케어
날: 2010. 11. 10
장소: 아리랑하우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어르신 지금도 어르신은 사랑받고 계신답니다!

누구나 모두에게 축하받고 싶은 날!
저희는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르신!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오늘도 사랑받고 계십니다~~”

매월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을 모셔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식사를 하며 행복한
날을 보냈습니다.

6.25의 아픔을 담은 영화 속에선 당신
들이 거쳐 온 역사의 시간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코믹한 드라마 한 편을 보듯 함꼐 소리
내어 웃으시기도 하시고...

어르신들의 삶의 애환과 기쁨을 담은 영
화와 교감하여 한동안 추억에 잠기기도
하시고...



어르신! 내년 생신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저희와 함께 웃고 행복한 날 보내요!! 약속해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저희 센터는 2011년에도
전주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시행 기관으로
재지정되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힘이 되어 드리는
『여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 ① 목적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보장하고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
- ②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③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 ④ 신청서제출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주민센터
- ⑤ 서비스 인정시간 및 본인 부담금

| 서비스제공시간 | 서비스 가격 | 본인 부담금 | | |
|---------|-----------|---------|----------|----------|
|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 |
| 월 27시간 | 월 248,400 | 무료 | 월 18,000 | 월 36,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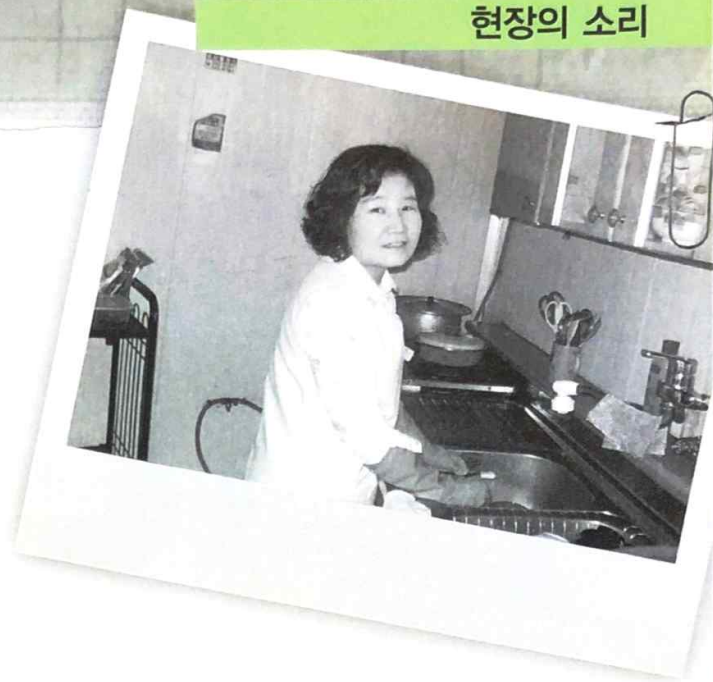
- ⑥ 서비스 내용
 - 신변, 활동지원
 - 가사, 일상생활 지원

- ⑦ 서비스 제공인력
노인복지법령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한 자.



언제나 이 첫 마음으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요양보호사 장한나



오랜 병환 중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겪어야 하는 가족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가족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음에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어르신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효자동에 사는 73세 어르신인데 오래 전부터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시며 딸과 아들 2명, 손녀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어르신은 파킨슨 병으로 인해 걸을 때마다 자주 넘어지시기 때문에 외출은 거의 힘들고 집 안에서 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따님은 동생과 같이 골재사업을 운영하며 혼자 사는 동생 뒷바라지에 어머니마저 병 중에 계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도 지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을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하나...까지 생각했을 정도였으나 어르신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고심하던 중 노인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어 지금의 서비스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에게 필요한 목욕도움 서비스와 이동시 부축해 드리고 식사 보조 및 대화상대가 없어 외로운 어르신의 말벗 서비스까지...

일주일에 두 번의 목욕은 어르신의 청결과 삶의 활력이 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 뿐 아니라 수발자인 보호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보호자는 서비스 시간을 좀 추가해서 받고 싶어했으나 전주시의 예산문제로 현재는 기존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 많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오랜 병환 중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족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가족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음에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첫 마음으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봅니다





추석 물품 지원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추석 명절은 우리나라 정서에 있어서 크고 의미있는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얻은 것들에 대해 하늘에 감사하고 가까운 친지와 이웃들에게도 감사를 전하는 풍성한 절기입니다.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거쳐 지내 온 저희 어르신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어르신들이 추석 명절을 외롭게 지내지 않도록 추석에 필요한 여러 물품들을 준비해 어르신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여 사랑과 한가위의 정서를 전달하였습니다. 햅쌀과 생선셋트(생조기, 명태포, 생오징어)를 선물 해 드렸는데 추석을 지낸 후 어르신들은 “쌀이 어찌나 기름지고 윤기가 나는지 입맛을 다시 찾았다고... 제사에 꼭 필요한 것들을 주어서 따로 시장을 보지 않았다고...” 거듭 고마움을 전하셨습니다.





성탄절 물품 지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전 세계 사람들 모두에게 축제의 날이며 사랑의 선물을 주고 받는 날이 있다면 그건 바로 크리스마스일 것입니다.

저희도 어르신들께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이 좋을까 고민하다 찻쌀떡 한 상자씩 포장하여 드렸습니다.

치아가 좋지 않아 딱딱한 음식을 드시지 못하는 분들께 부드럽게 씹혀 넘어가고 양금으로 들어간 달콤한 팔이 영양이 되어 어르신들은 식사대용으로도 너무 좋다고 어찌나 기뻐하시는지~~

마치 선물받고 즐거워하는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어르신들은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간 듯 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희도 함께 즐거웠습니다.



“오늘”의 소중함

“작은사랑 큰 기쁨 봉사단” 여부회장 **한일레**(자원봉사자)



지금 내가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갖게 된 건 아마도 철 없던 신혼시절

“나의 부끄러운 경솔함” 때문인지 모른다.

20 대 중반 아무 가진 것 없이 그저 빈 손으로 결혼 한 우리 부부는 첫 아이를 낳고 매번 끼니 걱정을 해야 했다.

그 날도 저녁은 또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누군가 방문을 두드려 나가보니 남루한 옷차림의 아저씨가 “밥 한 술만 주세요” 하는거다.

순간 난 아저씨의 지저분한 외모에 상대적 우울감을 느끼며 “없어요” 하고 차갑게 쏘아 부치고는 문을 닫아버렸는데 창문으로 보니 그 아저씨가 큰 방 할머니한테로 가는 모양이었다.

난 호기심에 큰 방 할머니 댁을 살짝 가서 쳐다보다 순간 너무도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깨끗한 밥상에 이것 저것 있는 반찬 모두 챙겨서 수저와 젓가락, 따뜻한 국까지 정성스럽게 대접하시는 게 아닌가!! 난 그런 할머니가 이상하게까지 생각됐다.

어떻게 저런 몰골의 아저씨한테 당신이 드시던 그릇, 수저, 젓가락까지 내어 주실 수 있을까?

식사가 마치자 할머니는 비닐봉지에 밥과 반찬을 넉넉하게 담아 주시면서 “배고프면 먹으라고... 다음에 갈 데 없으면 또 오라고...”

난 할머니께 여쭙보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지?

할머니의 대답은 이랬다.

“새댁! 최소한 그 사람은 도둑질은 안하잖아. 그것만으로도 된 거 아닌가?

그리고 누구에게든 처지를 보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면 안된다네.

사람은 모두 평등하지 않은가? 나름 착하게 사는 사람같아서 예쁜 맘으로 우리집 오신 손님대접을 한 뿐이네...”



난 외모만 보고 사람을 무시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지금도 가끔씩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면 그때 큰방

할머니의 정성어린 밥상을 생각하며 나를 돌이키게 된다.

이제 내 나이 50대 중반!

내 인생에 소중한 스승이 되었던 그 때를 기억하며 더 열심히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나는 오늘도 살아가는 중이다.

Congratulation! 수상을 축하해요

지난 하반기에 저희 센터에는 축하할 경사가 많았습니다. 센터 직원 두 명의 대외적인 수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동안 어르신들께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드리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우리 동료 분들께 이번 수상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소망하며 가슴 가득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하하고 축하드립니다!!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상 수상

10월 15일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었던 <제 20회 전국재가노인복지대회>에서 차상미 간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상 수상!

◎ 전라북도지사상 수상

11월 23~24일 무주리조트에서 개최된 <2010 전북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세미나>에서 권현정간사 전라북도지사상 수상!



고창 구시포

해수찜나들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뽀속뽀속까지 찬바람이 들어 온다니까! 시러~~ 시러~~”
 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 문턱에 들어 올 때면 우리 어르신들에게서 익숙하게 들던 말입니다.
 바로 이 때쯤 저희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뽀속뽀속까지 뜨거운 열로 마사지 해 드리는
 고창 구시포 해수찜으로 건강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작년 11월 11일! 관광버스 가득히 어르신들을 모시고 저희는 고창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지원해 드리는 여러서비스 중 만족도가 높은 것 중의 하나인 해수찜나들이!
 그래서인지 해 마다 찬 바람이 불 때면 어르신들이 먼저 넌지시 물으십니다.
 “올 해도 해수찜 갈거지? 허허”

간단히 이용설명을 듣고 난 후 우리는 똑같은 찜질복을 입고 대형 해수찜 룸에 들어가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그 동안 쭈시고 아파 고생스러웠던 허리, 어깨, 무릎 등을 돌아가면서
 찜질하였습니다.

데워진 해수의 뿌연 열기 속에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소리!

“어휴 시원~ 하다 이렇게 뜨겁게 지지고 가니 한동안은 쭈시지 않고 편안히 잠 좀 자겠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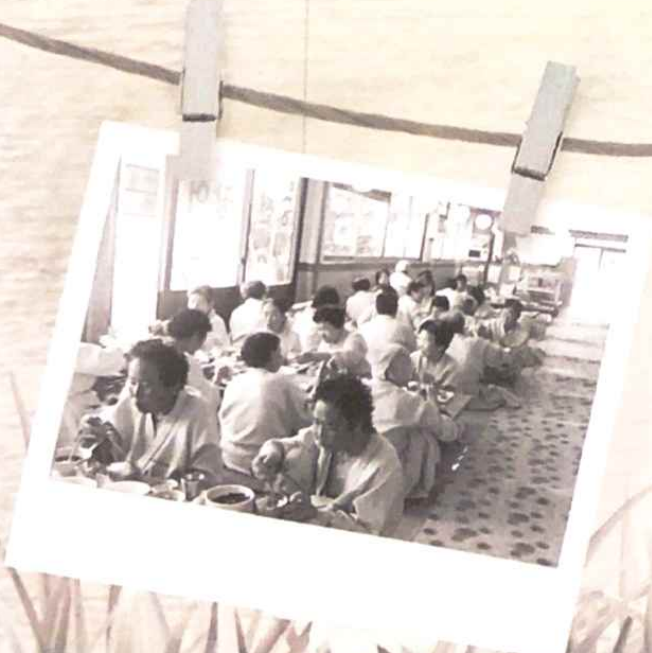
듣기만 해도 아름다운 말입니다. 바라만 봐도 행복한 모습입니다.

준비된 점심을 맛있게, 그리고 평소 식사를 잘 못하시던 분들도 한 그릇 다 드시고...

기쁘다고 노래 부르시고 다 함께 사진도 찍찍^^

어르신들의 한껏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희 직원들도 같이 또 웃습니다.

행복해집니다.





감동의 해님이 축제속으로

2010년 한 해 동안 저희 센터의 사업 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애써 주셨던 자원봉사자 분들을 위한 따뜻한 만남이 열렸습니다.

12월 24일에 있었던 자원봉사자 해님이축제!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를 즐기며 들떠 있는 밤에 우리는 함께 모여 그 동안의 서로의 애씀을 격려하고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해보다 유독 더 추웠던 올 겨울에 서로의 가슴에 훈훈함을 심어준 자원봉사자 해님이 축제!

사랑 가득 담은 크고 작은 선물을 정성스럽게 포장하여 감동의 멘트와 함께 날려 주는 센스...

누구나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돌아보며 고마웠던 여러 분들께 마음을 전하고 싶어합니다.

자원봉사 여러분도 봉사의 현장에서 있었던 보람된 일들이나 때론 속상했던 일들도 모두 아름다운 추억으로 새기셔서 새해에도 더 멋진 봉사자가 되어주시길~~



어르신 서비스 만족도 조사

1. 본 센터의 서비스에 만족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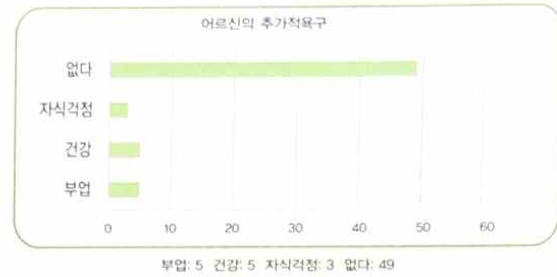
6.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는?



2. 본 센터의 직원은 진심으로 나를 도와 주는 것 같은가?



7. 현재의 추가적인 욕구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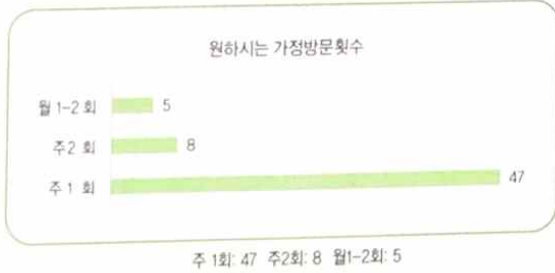
3. 어떤 서비스에 만족 하는가?



8. 어르신들이 받고 싶은 지식적인 교육은?



4. 어르신이 원하는 가정방문의 횟수는?



9. 가장 많이 지출하는 생활비의 항목은?



5. 가정방문시 원하는 시간은?



10. 인근 어떤 기관에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십니까?



제 20회 전국 재가복지대회

〈제 20회 전국 재가복지대회〉가 10월 15일 용산 국립 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법이 시행된 이후 그에 따라 여러 시행착오 등을 잘 해결하며 사업을 진행해 왔던 전국 재가복지센터들은 이제 또 변화될 새로운 정책에 대해 설명회를 듣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을 맞았습니다. 대회 일정 중 여러 종사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격려의 시상도 있었는데요, 저희 센터 차상미 간사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운영위원회



본 센터 운영위원 하반기 모임이 11월 14일에 있었습니다. 시설장님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대표이사님과 운영위원들은 2010년도 진행되었던 사업을 보고받고, 2011년도의 변화된 노인복지 패러다임을 들으면서 센터가 추구해야 할 더 나은 방향성을 함께 찾고 그에 따른 다양한 방면의 적극적인 협력의 뜻을 모았습니다.

2010 종사자 세미나

〈전북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세미나〉가 11월 23일~24일 무주 리조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노인복지 제도 변화 속에서 부지런히 대처하며 성실히 일해 온 각 센터 종사자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유익한 정보를 주고 받으며 다시 될 힘을 얻었습니다. 더불어 그 동안 애쓴 종사자들에 대한 시상도 있어서 더 축제의 시간였는데 저희 센터에서도 권현정 간사가 전라북도지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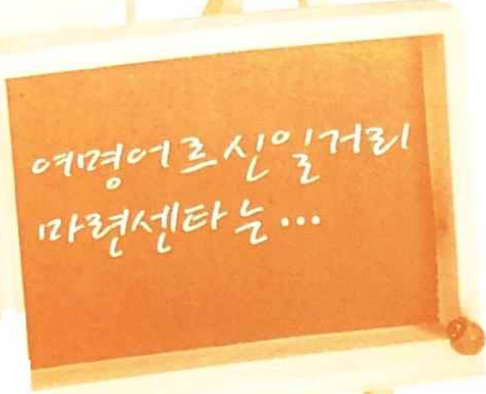


2010 직원 평가회



12월 18일 저희 직원들은 센터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2010 총괄평가회를 갖었습니다.

각자 분담된 업무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미흡했던 부분들은 돌아보고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나누는 송년의 시간을 갖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경제생활과 사회참여를 통해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여가 선용 및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주시에서 위탁받아 2003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어르신들이 센터를 통하여 삶의 기쁨과 활력을 얻고 계십니다.

| 사례발표 | 김현아 관장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저희 여명일거리마련센터는 지난 8년여 동안 어르신들의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어 가고 있다.



공 동 체 의식 함양

경쟁 대신에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따스한 정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개인별 작업소득 분배가 아닌 공동 작업을 통한 소득분배방식을 하고 있어 작업 분위기가 항상 밝고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치료의 효과

4남 1녀를 두신 80세의 부부 어르신이 계시는데 이 두 분은 모두 치매를 앓고 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전국 곳곳을 다니시며 본인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으셔서 지금도 가족들이 잠시 보이지 않으면 혼자서 어디론가 나가신다. 현재까지 실종신고만 3번이다.

이 어르신이 하시는 일은 그나마 단순한 상자집기다. 설상가상 76세 부인 할머니 역시 피해망상증 치매를 앓고 있어서 누군가 어르신 집의 전기와 석유 등을 도둑질해 간다고 호소한다. 어르신이 하시는 일은 포장일이다. 이런 두 분이 집에 계시는 서로가 언성을 높이다보니 속이 항상 상해 있어서 서로가 힘들 뿐 아니라 자녀들도 이런 두 분 때문에 근심이 많았던 상태였다. 그런데 우리 일거리마련센터에 나오시면서 잘 어울리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웃으며 생활을 하게 되었다. 또 할아버지는 상자집는 일이 있을 때는 혼자서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으시다.

“나도 나가서 일할 곳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쟁겨 일터에 웃으면서 오신다.

또한 어떤 어르신은 아들의 죽음을 보고 우울증에 시달리셨는데 일터에 오셔서 웃음과 삶의 희망을 찾아가고 계신다.

희망의 직장

94세 어르신의 고백이다.

“아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관장님 감사합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내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일이 없으면 심심해서 애가 터져 죽겠어! 이제 일터에 오니까 너무나 좋아~~”

비단 이 어르신만의 고백이 아니다 일터에 오시는 어르신들의 한결같은 고백이다. 일터는 어르신들의 직장이다. 일터는 진정한 복지이다. 돈으로 생활을 도와주는 것 그 이상이다. 오늘도 어르신들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 한다. “빨리 죽으려면 집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라고!!



◆ 2010 세입·세출 결산보고 ◆

(2010년 1월 1일 ~ 12월 31일)

| 세 입 | | 세 출 | |
|------------|--------------------|------------|--------------------|
| 보조금수입 | 101,152,000 | 인 건 비 | 180,984,047 |
| 후원금수입 | 13,635,007 | 업무추진비 | 62,150 |
| 법인전입금 | 74,646,262 | 운 영 비 | 12,532,110 |
| 사업수입 | 20,990,552 | 재산조성비 | 1,279,000 |
| 기타잡수입 | 17,713 | 사 업 비 | 15,802,300 |
| | | 반 환 금 | 17,260 |
| 이 월 금 | 235,333 | 이 월 금 | - |
| 총 계 | 210,676,867 | 총 계 | 210,676,867 |

◆ 2010 후원금 세입·세출 ◆

| 세 입 | | 세 출 | |
|------------|-------------------|------------|-------------------|
| 이월금 | 75,362 | 사무비 | 796,699 |
| 비지정후원금 | 13,635,007 | 사업비 | 12,913,670 |
| 총 계 | 13,710,369 | 총 계 | 13,710,369 |

2011 상반기 사업계획

정기적 사업

- 방문요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생신축하, 영양죽/밑반찬지원서비스
- 직원월례회 및 교육, 운영위원회 모임, 노노케어
- 요양보호사 및 봉사자 간담회/ 보수교육 / 단합대회
- 장애인도시락 및 밑반찬지원서비스
- 장기요양 대상자 발굴 및 후원과 자원봉사 수시모집/홍보



월별 주요사업

- 1월
 - 직원시무식, 절기지원 (설 명절)
- 2월
 - 상반기소식지발간
 - 동절기 내의지원
- 3월
 -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
 - 어르신 소그룹 나들이
- 4월
 - 절기지원(부활절 음식나눔)
 - 자원봉사자 단합대회
- 5월
 - 전북 재가노인 초청 효도큰잔치
 - 어버이날 기념축하
- 6월
 - 자원봉사자 간담회

가족

우리의 작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물질후원 |

강미현, 강원봉, 권오희, 권정근, 권태균, 권현정, 김경숙, 김관선, 김기현, 김남희, 김미현, 김어진, 김요셉, 김인순, 김정희, 김창주, 김현석, 김현아, 김희진, 김희태, 노영숙, 노인숙, 노정숙, 노항래, 도성숙, 도화자, 라병수, 라희정, 류은기, 박래승, 박은영, 박은영2, 박일주, 박종옥, 박현우, 방혜정, 서옥주, 소미자, 소점례, 소효례, 송도현, 송연태, 송주희, 송현주, 신순미, 신은경, 신향순, 안세웅, 안영선, 양은희, 오정순, 유미, 유덕순, 유순임, 유영숙, 유정자, 유태완, 유해월, 이국진, 이금자, 이기룡, 이상례, 이석길, 이석봉, 이석연, 이세라, 이소영, 이수영, 이정우, 이정후, 이현미, 이현심, 임선아, 임영희, 임은희, 장한나, 정미영, 정숙희, 정찬갑, 조병수, 주미애, 진정택, 차상미, 차진석, 채영병, 천홍지, 최현, 최규홍, 최명순, 최미선, 최승호, 최윤정, 최재호, 최정애, 최종호, 한영중, 한현숙, 함미숙, 홍옥숙, 황방연, 황은희, 다복술, 대흥정판사, 제2청년부

| 물품후원 |

김요셉, 나라축산, 낙원떡집, 노영관, 다복술, 대주상사, 대흥정판사, 동일농장, 박래승, 박태섭, 본죽중화산점, 봉유통, 선플라워웨딩홀, 송천건어물, 숲플라워, 승현상사, 일한의료기, 전북은행호암로지점, 진보식품, 코코호도금암점, 코코호도서신점, 파리바게트마전점, 푸드뱅크, 하나로떡집, 하림완산대리점, 형제유통

| 자원봉사자 가족 |

김기현, 김민수, 김성희, 김옥례, 김요셉, 김윤일, 김정일, 김종문, 김종수, 김태영, 김화영, 권태균, 노승주, 노영숙, 노정숙, 라병수, 문세권, 박래승, 박은영, 박지숙, 송연태, 양승자, 양인순, 유순임, 윤미례, 이미경, 이민정, 이소영, 이승환, 임은희, 장옥심, 장한나, 정건영, 정숙희, 정영란, 정진영, 정희승, 조계석, 조윤주, 조혜숙, 주미애, 진성택, 진소민, 천홍지, 최명순, 최승연, 하옥순, 석유품질공사, 전북은행호암로지점, 작은봉사큰기쁨봉사팀

※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혹 기록상 착오로 누락된 분이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여명노인복지센터

전북은행 510-13-0310192

국민은행 501-01-0601-523

우체국 400010-01-011708

농협 658-01-002798